

벌침 봉독으로 무항생제 돼지 키운다

(蜂毒)

벌침에 함유된 천연 항생제인 '봉독(蜂毒)'이 친환경 쇠고기·돼지고기 생산은 물론 양봉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해남군에 따르면 전남도내 각 지자체의 돼지의 무항생제 인증 농가수는 평균 2~3곳이지만 해남은 6곳에 달해 돼지의 무항생제 인증률이 전남도내에서 가장 높다. (사진)

벌침의 봉독은 항생제인 '페니실린'(penicillin) 1천200배 이상의 살균과 소염(消炎) 작용이 있어 가축염증성 질환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돼지 축산농가의 경우 어미돼지에게 벌침을 시술해 면역력을 키워 건강한 새끼를 낳도록 하고, 새끼돼지 역시 생후 3일 이내에 벌침을 나향병력(抗病力)을 증가시켜 폐사를 낮추고 있다.

최영림(47·해남군 현산면) 다우리농장 대표는 "지난해 해남군에서 '벌침이용 친환경 축산물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해 효과를 봤다"며 "벌침 시술이 잔류 항생제가 전혀 없는 친환경 무항생제 돼지를 키우

페니실린 1,200배 이상의 살균·소염 효과

해남 인증농가 늘어 양봉농 새 소득원 기대



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남군이 9억6천여 만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값싼 자돈(새끼돼지) 분양센터에서 무항생제 육성돈을 생산해 농가에 분양하고 있는 것과 무항생제 인증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도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같이 벌침을 활용한 친환경 축산이 점차 늘어감에 따라 '봉독'

보급하고 있다. 보성군은 지난 2007년 관내 양봉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빠르게 봉독 채취기 45대를 지원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소득과는 연결되지 않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환경을 만들어 친환경 축산의 경쟁력을 갖추어나고 있다"며 "친환경 인증 확대와 사후관리를 통해 해남 축산물의 이미지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군 보성 꿀벌연구회 총무는 "가축에 봉독주사를 놓는 실증 시험결과 실제 벌침과 똑같은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봉독 주사요법이 널리 보급될 경우 항생물질 잔류가 없는 친환경 축산물 생산과 양봉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봉독에는 몸속 피로해를 완화하게 하는 '펩티딘'을 비롯해 40여 가지의 다양한 단백질 성분이 함유돼 있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면역기능을 극대화시켜 외부로부터 침입한 병원균을 이겨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기동·해남=박희석 기자 song@

나주 '민원실 1시간 일찍 열기' 失效

시기·홍보 늦어 전시행정 비난

나주시가 시 산하 공무원의 시민 중심 사고전환과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쁜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읍·면·동 민원실 '1시간 일찍 열기' 시책이 뒤늦은 홍보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6월초부터 농민들이 행정기관을 일찍 찾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책을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정착 농촌의 바쁜 시기는 5월 중순부터 6월 하순까지로 시기와 홍보가 늦어 친절한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높다.

산포에 사는 김모(45)씨는 "농민을 위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많은 농민들이 이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것"이라며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펴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농번기 행정기관을 일찍 찾는 주민들이 직면할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실 조기출근 고대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민원실내 미니 정원 조성과 사계절 꽃이 있는 아늑하고 쾌적한 환경 만들기, 인터넷방, 대화방 운영 등 민원편의 시설을 확대,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데 힘을 쏟고 있다.

/나주=정철원기자 chung@



완도 금일도 다시마 말리기

본격적인 다시마 수확기를 맞아 완도 금일도 어민들이 18일 해풍에 다시마를 말리고 있다. 전국 다시마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완도 지역은 연간 22만t에 77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현재 가격은 kg당 4천원선이다. (완도군 제공)

"유기 과수원 토양 '미소동물' 먹이 풍부"

(微少)

도 농기원 친환경경 조사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재배하는 과수원이 관행 농법에 비해 토양 미소(微少)동물의 먹이가 풍부하고 생태지수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소 방제연구팀은 최근 보성군 벌교읍 마동리 선종옥 농가의 유기 배 과수원에서 토양에 서식하는 미소동물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유기 배 과수원에서는 cm당 13종 503마리, 일반 과수원에서는 11종 145마리의 토양 생물이 채집됐다.

채집된 종은 거미, 지네, 노래기와 곤충들이었으며, 일반 과수원보다 유기 과수원에서는 음과와 거미가 많았다.

특히 유기 과수원에서는 '흙 속의 플라랑톤'이라 불리는 토포기가 247마리로 일반 과수원에 비해 7배나 많이 채집됐다.

많은 토양생물의 먹이사슬 중 최하

위에 속하는 토포기는 거미류와 딱정벌레, 응애류의 좋은 먹이감이다. 환경저항성 중간 종으로 풀리는 흰개미도 일반과수원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나 유기과수원에서는 44마리가 발견됐다.

이번 조사에서 토양 미소동물의 종 다양성이 일반 과수원보다 유기 과수원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생태지수인 종 다양도 1.589로 일반 과수원의 1.383보다 더 높아 유기 과수원의 생태계가 더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배 과수원에 발생하는 해충과 천적의 종류 조사를 통한 곤충 다양성을 분석해 유기농업 생태계의 변화와 안전성을 입증해 전국 친환경 1번지로서 브랜드 가치를 계속 가꾸어 나갈 계획"이라며 "친환경 농업을 실천할 경우 천적의 먹이사슬같은 농업환경의 건전성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양 '매실떡갈비 스테이크' 대성

휴게소 맛지랑 경영

지난 17일 한국도로공사 호남 지역본부 주관으로 남해고속도로 삼진간(순천방향)휴게소에서 열린 '2009 휴게소 맛지랑 경영대회'에서 광양의 특산물로 만든 '청매실 떡갈비 스테이크'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삼진간 휴게소에서 출품한 '청매실 떡갈비 스테이크'는 떡갈비

에 매실을 넣어 육질을 연하게 하고, 먹을 때 부담스러움이 없는 음식으로 오는 7월부터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밖에 최우수 상으로 장성 백양사휴게소(봉나 무오분차 특매기)와 고창 휴게소(풍천 장매기)가 선정됐으며, 우수상으로는 곡성휴게소(표고버섯 우렁반장찌개)와 주암 휴게소(돼지국밥)가 뽑혔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

여수시 산림조합장 허재열씨

여수시 산림조합장에 허재열(65)씨가 당선됐다. 허씨는 전 여수시청 환경복지국장 출신으로 33년간 산림과 도시녹화에 봉사해왔다.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허 조합장의 임기는 오는 8월31일부터 2013년



7월30일까지 4년 간이다.

허 조합장은 "임기동안 조합을 내실있게 운영해 전남 제1의 자립조합으로 육성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ykpark@

장성 친환경 복분자 판로 확보 나서

농협과 수매계약·자매결연 도시 직판행사 추진

장성군이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판매부진으로 이종고를 겪는 친환경 복분자 판로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장성군에 따르면 올해 장성지역 복분자 수확량은 지난해 235t보다 46%가 늘어난 343t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주)보혜양에서 15t에 수매했으나 올해는 복분자주 판매 감소와 재고량이 1천t에 달해 올해 수매량은 지난해에 미치지 못해 판로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보혜 측은 장성 지역 복분자 수매물량으로 24t만 배정했으나 이 청 군수

가 두차례 보혜양조와 협상을 거쳐 100t으로 늘렸다.

그러나 올해는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 군은 보혜양조 수매와 함께 다른 판로 개척에 나섰다. 지역 농협과 수매계약을 추진해 복분자의 주요 재배지역인 북이, 북하지역에서 생산된 복분자는 백양사농협에서 수매하고 장성읍, 동화, 황룡, 서삼, 북일에서 생산된 복분자는 장성농협에서 수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도시를 중심으로 직판 행사를 확대해 19~1일 경기도 과천시를 시작으로 서울 중구청 등 자매

결연 도시를 대상으로 직판행사를 열 계획이다.

17일 북하면 복분자 농장 시찰에 나선 이 청 군수는 "복분자 재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복분자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출항인사와 대형 유통업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복분자 판로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2004년부터 복분권을 중심으로 382농가 90ha의 복분자 단지를 조성하고 가뭄 등에 대비, 관수시설 및 관정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장성=류종성기자 yjs52@

(주)국민법률경매

공인중개사: 강 영 희
☎ 0621364-8700
H.P 010-4608-3700

지역	소재지	면적(㎡)	건평(㎡)	최저가
전남	광양	소매지 112/34	198㎡	7천2백
	광양	소매지 122/37	191㎡	7천7백
	광양	소매지 102/31	87㎡	6천
	광양	소매지 112/34	191㎡	1억1천
	광양	소매지 112/34	191㎡	8천9백
	광양	소매지 112/34	191㎡	8천7백
	광양	소매지 112/34	191㎡	8천7백
	광양	소매지 112/34	191㎡	8천7백
	광양	소매지 112/34	191㎡	8천7백
	광양	소매지 112/34	191㎡	8천7백
전남	광양	소매지 112/34	191㎡	8천7백
	광양	소매지 112/34	191㎡	8천7백
	광양	소매지 112/34	191㎡	8천7백
	광양	소매지 112/34	191㎡	8천7백
	광양	소매지 112/34	191㎡	8천7백
	광양	소매지 112/34	191㎡	8천7백
	광양	소매지 112/34	191㎡	8천7백
	광양	소매지 112/34	191㎡	8천7백
	광양	소매지 112/34	191㎡	8천7백
	광양	소매지 112/34	191㎡	8천7백
전남	광양	소매지 112/34	191㎡	8천7백
	광양	소매지 112/34	191㎡	8천7백
	광양	소매지 112/34	191㎡	8천7백
	광양	소매지 112/34	191㎡	8천7백
	광양	소매지 112/34	191㎡	8천7백
	광양	소매지 112/34	191㎡	8천7백
	광양	소매지 112/34	191㎡	8천7백
	광양	소매지 112/34	191㎡	8천7백
	광양	소매지 112/34	191㎡	8천7백
	광양	소매지 112/34	191㎡	8천7백